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2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십자가의 일을 통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성경: 고전 1:18, 22-24, 2:2, 14-15, 3:1, 3, 6:17, 14:37, 32, 히 9:3-4

- I. 고린도전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십자가의 일을 통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계시한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약하고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는 기적을 구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었으며, 지혜를 구하는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분이셨다 — 고전 2:2, 1:18, 22-24.
- A.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은 복합적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이는 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일에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적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수 있게 한다 — 출 30:22-25, 빌 1:19, 3:10, 영한동번 찬송가 481, 631 장.
- B. 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자들이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부활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취하고 자신을 부인하여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를 옛 창조물의 사탄적인 혼돈 안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이들로 만들고 우리를 새 창조물을 위한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 아 2:8-14, 빌 3:10, 고후 5:17, 갈 6:15, 영한동번 찬송가 477 장.
- C. 요한계시록 2 장 7 절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부족한 데서 야기된다.
1. 요한계시록 2 장 7 절은 생명나무에 대해 말하고 여기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4 절의 '나무'와 같은 단어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 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라고 말한다.
 2. 따라서 우리가 먹고 누리기 위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나무가 십자가인 것에 암시되어 있음 — 벰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 — 요 11:25) 그리스도이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나타남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임을 체험한다. 모든 문제를 지닌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매일 죽이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고후 4:10-12).
- D.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십자가의 일을 통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한 데서 볼 수 있다. 그후에 그들이 '쓴맛'을 의미하는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기에 좋지 않았다 — 출 15:22-26.
1. 삼 일은 부활을 상징한다(마 16:21, 행 10:40, 고전 15:4).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분별된 것이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함축한다.
 2. 주 예수님은 제삼 일에 살아나셨고(고전 15:4)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제삼 일(고전 15:45 하, 호 6:2)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삼 일은 부활의 날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쓴 물에 던진 나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은 후에 그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졌기 때문이다.

3. 이 나무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벧전 2:24, 사 53:5).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쓴 물에 던진 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생명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4. 쓴 장소인 마라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출 15:25). 모세가 나무의 이상을 보고 이 나무를 쓴 물에 던진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쓴 것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쓴 물은 안식과 충만한 만족으로 상쾌하게 하는 그분의 임재의 단 물이 될 것이다 — 행 3:19-20 상, 시 23:2 하, 비교 119:103, 겔 3:3, 사 61:3, 시 16:11, 30:11-12.
5.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 출 15:26.
6.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여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도록 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벧 3:10)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쓴 것을 달게 할 것이다(비교 고후 1:8-9, 12 및 각주 2).
7.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참 달콤하고 달콤해 / 세상, 자아, 죄에 죽고 / 나 주와 함께 산다네”(영한 동번 찬송가 482 장).

II. 고린도전서의 목표는 혼에 속하고 육체적이고 어리석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생명의 성장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는 믿는 이가 세 종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고전 2:15, 3:1, 3, 14:37, 32.

- A. 믿는 이는 성령의 기름 바름 아래 자신의 영 안에서 사는 영적인 사람일 수 있다 — 롬 8:4,6, 갈 5:25, 고전 15:45 하, 6:17, 비교 계 2:5, 16, 21, 3:3, 19.
 1. 영적인 사람은 육체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혼 생명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신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영에 다스림받고 통제받는다 — 빌 2:1, 고전 2:15.
 2.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혼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혼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점유되어 활력을 얻은 거듭난 영이 자신의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사람의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영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일들을 안다 — 고전 2:11-12, 비교 롬 8:16, 고전 6:17.
 3.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연합된 영에 다스림 받고 통치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는다 — 고전 5:3-5 상, 6:17, 고후 2:13-14, 딤후 4:7-8, 딤후 1:6-7, 비교 말 2:15-16.
- B. 믿는 이는 타고난 생명인 혼의 지시 아래 자신의 혼 안에서 사는 혼적인 사람일 수 있다 — 고전 2:14, 비교 히 4:12.
 1. 혼적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타고난 사람이다. 즉, 혼(생각과 감정과 의지)이 그의 온 존재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을 무시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 유 10, 19-21, 24-25.
 2.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일들을 알 수도 없다. 타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 고전 1:22-24.
- C. 믿는 이는 육체적이거나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에 속하고 육체의 본성의 영향 아래서 육체 안에 살 수 있다 — 고전 3:1, 3.
 1. ‘육체적인’은 육체로 구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육체에 속한’은 육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고 육체의 특성에 참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2. 고린도 믿는 이들 사이의 시기와 다름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육체에 따라 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고전 3:3-4, 1:11-12, 갈 5:19-21.
- D. 주님은 모든 믿는 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첫 번째 종류의 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신다(갈 6:18 계 4:1-2).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신(고전 15:45 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고전 1:9), 또 그분과 한 영이기 때문에(고전 6:17),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 안에서 살 때에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롬 1:9, 7:6, 8:4, 14).

III.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구약의 지성소 안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히 9:3-4).

- A.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누린다. 이것이 감추어진 만나 곧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뜻을 누리는 것이다 — 출 16:31-36, 계 2:17.
1.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모든 간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2.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감추어진 만나로 누릴 때 우리는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갖고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된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입받는다 — 겔 44:15-18.
 3.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의 위임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 비교 행 13:1-3.
- B. 싹 난 막대기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민 17:8.
1. 민수기 16 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배역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열두 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막대기를 취하여 회막 안에 있는 궤 앞에 두라고 명하셨다. 그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라고 하셨다 — 민 17:5.
 2. 열두 막대기는 모두 이파리와 뿌리도 없고 메말라 죽어 있었다. 어떤 것이든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며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떠난 것임을 본다. 따라서 싹 난 지팡이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권위가 있게 하신다 — 민 17:9-10.
 - a.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부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마지막에 이르러야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 마 19:26, 막 10:27, 눅 18:27.
 - b.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한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부활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의미한다 — 비교 고후 1:8-9, 4:7.
- C. 언약의 돌판들 곧 율법의 돌판들은 자연스러운 능력과 자동적인 기능과 본래의 능력과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역량인 신성한 생명의 법을 상징한다 — 렘 31:33, 32:39, 히 8:10, 비교 롬 8:10, 6, 11, 10:12-13.
1. 이 역량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증가, 그분의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 된다 — 엡 1:22-23, 3:19-21.
 2. 더 나아가, 내적인 생명의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한다 — 엡 4:11, 16.
 3.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맡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양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인 표현을 갖게 되신다 — 롬 8:2, 29, 사 43:7, 계 21:10-11.